

“살아 있는 믿음”

약2:14-26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중에는 행함은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떠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 23 장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면서 세가지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죽은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 사항이나 개인적 신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념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주체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주체가 되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결정하시고 나는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신앙의 기준을 형제나 자매 중에서 혈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동정이 없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성도 중에 집과 옷이 없어 추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동정심이 없다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 지식적인 믿음

“**약 2:19)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한 지식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는 귀신들에게도 그러한 지식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온전히 속사람이 변화되고 실천적인 믿음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라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는 귀신이 믿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입으로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 2:20)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신앙은 허탄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3. 살아 있는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은 말씀에 행동으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약 2: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이 믿음의 최종 확인은 이삭을 모리안에 바쳤을 때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외아들을 재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2:22)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여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더 커지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 2: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이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 2:25)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항복하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 주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4.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1)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오합지졸처럼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2)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다이아몬드의 감별법이 있습니다. 조그만 유리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유리그릇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고 다이아몬드를 통해 부서지는 광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데, 본래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라도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서 육안으로 보면 형형색색의 빛깔을 발산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 그렇게 찬란한 빛을 내던 모조품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 빛이 퇴색하고 빛을 투과시키는 양도 급격하게 그 빛을 잃고 탁한 기운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장소든지 상관 없이 색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보다 물속에서 더 맑고 깨끗한 빛깔들을 내는 다이아몬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데는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깨뜨리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깨뜨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낙심되는 일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아를 깨트리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3)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결국 목숨을 포기한 일입니다. 아무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순간 순간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신념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신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예수 그리스도)을 아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아는 자와 믿는 자는 현상적으로(삶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겠습니까?
4. 최근에 살아 있는 믿음으로 ‘결단’한 (크고 작은) 사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지난 주에 결단한 VIP를 향한 사랑의 실천 프로젝트 실행 결과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